자장매 더욱 붉고 찬 소나무 푸르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激石灘聲如戰敲(격석탄성여전고)하고 翻天浪色似銀山(번천낭색사은산)이로다. 灘驚浪打風兼雨(탄경랑타풍겸우)나 獨立亭亭意愈閑(독립정정의유한)이로다.

바위 치는 여울의 물소리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 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성난 파도 바람과 비를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 갈수록 한가롭네.

제방 선원의 선객들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다사다난한 세간 일이 꿈같이 스쳐 갔도다.

마치 여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백로와 같이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이겨내니 화두가 타파되고 수행자의 본분이 분명히 드러났도다.

물보라 넘어 펼쳐지는 경치는 백로의 곧고 강한 다리와 물결을 이기는 힘이 아니면 보지 못하며, 쏟아지는 물줄기의 틈새를 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은 무슨 경치를 보았는가?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세간의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영각 앞 자장매는 더욱 붉고 무풍한송은 더욱 푸르다 하리!

細思乃不然(세사내불연)하고
眞巧非幻影(진교비환영)이로다.
欲令淨土妙(욕령정토묘)면
不厭空且靜(부염공차정)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곧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묘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게 좋은 정토를 만들려면 공과 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해제했다 방심말고 때때로 자신을 살피라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見性悟道我看我
看者與境本不二
把定繩頭證無爲
無言童子呵呵笑

견성하여 도를 깨침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본래 둘이 아니다.
화두 들어 무위법을 체증했다면
말 못하던 동자가 하하하고 웃을 것이다.

삼동결제동안 정진하신 모든 불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선원이건 염불원이건 강원이건 각기 인연 따라 정진하여 오늘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결제 때 세운 서원을 얼마나 성취했고 조사의 관문을 몸소 뚫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진이란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是甚麼?

실체가 없는 나이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나입니다. 이 나는 실체가 없으니, 나라고 하지만 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나 아니라고 하여 나 외에 따로 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는 나와 나 아님의 둘이 아니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유정과 무정이 다 같이 나의 본바탕입니다. 이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나는 현현(玄玄)한 무아(無我)이면서 동시에 역역(歷歷)한 진아(眞我)입니다. 해제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시시때때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나를 놓치지 말고 살피고 살피십시오. 咦!

관음보살 부르는 생생한 이 물건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한 생각 화두에 제행이 총섭이 되니 얼마나 한가한가! 납자의 이 여유, 이 멋.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무슨 맛으로 사나? 산 눈동자 환희심이다. 일체가 일반 반(般)이요, 둘이 아니니 같을 야(若), 반야로다. 눈뜬 이 자리 응관이요, 반야요, 불가사의 이뭘까다.

"이륙시중 부작일물(二六時中 不作一物). 어떤 것도 짓지 마라. 쉬지 마라. 입이 벌려져 감탄해져도 한 주먹으로 쳐 날려버려라. 아방궁이라 해도 한 발로 차 뒤집어 엎어버려라. 기운 있을 때 더욱 다그쳐라. 재미없는 곳에 재미를 봐라. 쉬어라. 목전에 역력하다."

경허스님 법문입니다. 아, 통쾌하다!

새벽 대종소리 개운해지네, 세상이 개운해지네. 끝없는 삼보의 대자대비, 우렁찬 한 가닥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 서리어 한 모양으로 둥글었네. 하늘땅이 어루만져지네. 산하대지가 어루만져지네. 백억 생명들이 어루만져지네. 극도의 이 고요, 한 생각 이 반야, 이 활기 세상은 이 품 안이네. 이뭘까 품 안이네, 보고 듣는 응(應), 응하는 이 신비! 응관(應觀) 십만호 집집마다 문 두드리니 응답하네.

응관법계성, 부처님 전 재산 이렇게 와 있었네. 유아독존(唯我獨尊), 다 물려받았네. 아, 내 책임이다. 머슴, 일머리 아는 머슴, 상머슴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뭘까? 지우고 지워, 텅텅 비어 시원하게 숨통 터지게, 돌이켜질수록 시원하게 숨통 터지게, 무진삼보 대자대비 어루만져질 수밖에 없네. 다 안아줄 수밖에 없네.

대중 발우공양 목탁소리에 죽비소리에 시간 따라 구절구절 이뭘까 화두 이 공양이 감당이 됩니까? 깨워 원활해진 핏길, 벙실벙실 웃게, 천금도 녹일 수 있게, 구할 것이 없지만, 바랄 것이 없지만 세세생생 보살행 준동함령등피안(蠢動含靈登彼岸) 세세상행 보살도 벅찬 이 명분, 아! 벅찬 이 명분이여! 이글이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본다, 듣는다, 마하 반야바라밀, 엄청나다, 이 놈이여, 이 행복이여!

둘이 아닌 한 덩어리 법계성, 응관법계성. 보고 듣고 응하는 이 주인공, 일체는 이 물건의 조화. 일체가 유심조(唯心造), 생명의 바탕, 응하는 이 물건. 천파만파가 응하는 이 자리로 녹아져, 둘이 아닌 이 자체로 녹아져, 무한의 응(應), 흔적이 없는 영(0), 모든 생명의 바탕 이뭘까?

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아, 만고의 휴식처 이~뭘까? 위음왕불 이전부터 이와 같았네. 이렇게 쉬었었네, 즉하에 이뭘까? 알 수 없는 불가사의 이뭘까가 이렇게 지우고 비워 받치고 있었네. 경허스님,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시아가(是我家), 우뢰같은 충격이다, 엄청나다. 삼천대천이 이 시(是)로 다 녹아졌네! 화두뿐이네. 〈중략〉

저승사자가 못 찾는 끝 파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곳 생기 펄펄한 살아있는 공부의 현장, 나물 다듬고, 불 때고, 저승사자가 못 찾는 감추어져 목숨이 보전되는 곳, 말단, 끝 파도. 어린아이 어미 찾듯 가깝게 간절한 곳에 밝은 해 동천에 둥그렇게 솟아오른다. 무슨 가풍이냐? 방(棒)과 할(喝) 빗방울같이 갈증을 풀어 적셔주네.(나무아미타불)

하늘 별무리 구름사이로 수덕사 관음바위 전각 틈새로 봄이 깔려오고 있습니다. 노승의 다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대자대비 넘치는 사랑의 관세음보살은 순간순간 쓰고 있는 고마운 이 육신입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성성한 이 물건 응관이요, 이뭘까요, 구경열반입니다.

눈 뜨기 전에 깔려있는 이 고요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숨길 이~뭘까?

2월 24일 계묘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2월 22일 기준으로 결제 당일에 하신 방장스님 법어는 싣지 못했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동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는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결제만 있다면 그것은 결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요 또 해제만 있다면 그것 역시 해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가 있는 결제야 말로 제대로 된 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결제가 있는 해제야 말로 해제로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있는 것인데 해제가 결제와 무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해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 때도 항상 결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만행을 하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또 문답을 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월화(月華)선사가 해제를 맞이하여 찾아 온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대용(大容)지방에서 결제를 마치고 왔습니다."

"동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습니다."

"서쪽 길로 왔다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은 만났는가?"

그 말을 듣고 납자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절을 올리니 선사께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법담인데 결제를 어디에서 했다는 대답의 한마디 한마디는 생활 속의 대화로 격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늦게라도 알아차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상여 뒤에 약봉지를 매단 격입니다.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상여 속에 있는데 뒤늦게 약봉지를 처방받은 것과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서쪽 길로 왔다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은 만났는가?'라고 했을 때 차라리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화두로 삼으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더 나을 뻔 했습니다. 그러면 절을 올릴 일도 없고 월화선사께 제대로 된 한마디를 얻어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결제공부를 못했으니 제대로 된 해제공부도 못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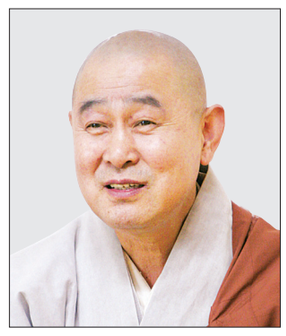
해제랍시고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짚신만 닳게 한다면 그런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염라대왕이 짚신값을 청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봄에 한 알의 종자를 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세상 전체에 노는 땅이 없지만 그런 농부도 굶어죽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납자들은 심전(心田) 즉 마음 밭을 농사짓습니다. 심전을 일구고 가꾸는 일에 해제와 결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해제를 결제처럼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걸망 속의 발우를 제대로 들고 다닐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륙시중소불첨다(二六時中小不添多)하니.
일일안거시시자자(日日安居時時自恣)로다.

하루 스물 네 시간 적어도 더할 수 없고 많아도 뺄 수 없으니. 일 년 삼백육십 날마다 안거하고 수시로 자자를 하도다.

본분사 해결 위한 정진을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석 달 동안 화두일여 속에서 확철해서 무겁게 짓누르는 의심 덩어리를 해결한 눈 밝은 납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한 납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데는 결재 해제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토예토(淨土穢土)가 본래일심(本來一心)이요
생사열반(生死涅槃)이 종무이제(終無二際)니라

정토와 예토가 본래 한 마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맑고 깨끗한 세계가 따로 있고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더럽고 깨끗함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본래 마음은 맑고, 如如(여여)해서 연꽃과 같은 마음인 것이다. 근본 마음 자체는 탁 트여서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맑은 마음 그 자체에 미움도 없고 성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 된 마음으로 밉고 곱고 깨끗하고 더럽고 온갖 마음에서 차별 경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 바탕은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늘 맑고 如如(여여)한 것이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서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하늘 바탕이 어두컴컴한 것은 아니다.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검은 먹구름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면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맑고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 자체가 때가 묻거나 깨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맑고 파란 하늘입니다.

우리가 모두 간직한 근본 마음은 마치 파란 하늘과 같아서 더럽혀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맑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온갖 생각들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온갖 마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그림자에 속아서 온갖 괴로움을 만들고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生死(생사)와 涅槃(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생사가 있지만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생사와 열반이 本空(본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인 것입니다.

만경무한(萬境無限)하여 함입일심지내(咸入一心之內)니라.

만 가지 무한한 경계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 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경계가 모두가 자신의 한 마음에서 분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만든 경계에 속아서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그 무엇을 갈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으며 어디로 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 그대로 如如(여여)해서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습니다.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 一如(일여) 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리를 설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전도의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